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데미안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어릴 때 데미안을 읽었을때는 무슨말인지 정말 하나도 몰랐다.
나이가 들고... 고명한 작가의 유튜브를 보던 중 고전을 읽고 싶어졌다.
고전을 읽으면서, 고명한 작가 및 믿음사 등등에서 데미안의 극찬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알에서 깨어난다~' 라는 문구가 나에게 와닿아 다시 시작이 되었다.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
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

● 키워드

- 두세계: 선의 세계만 알던 나... 경험과 나이가 쌓이며 악을 보다!
(((묘사: 유년시절 겪어볼만한 악의 그림자들과 나의 마음들)))
< 충격! 나는 착한 사람인데...
- 카인: 악이 과연 정말 나쁜것인가?
- 베아트리체: 악의 수용 총량의 법칙... 끝나면 알을 깨려고 함.
(((묘사: 사랑의 시작... 아무것도 안보이고 잘보이고 싶어지며 바뀜
< 악을 수용하다... 고통스럽다... 아니다... 개선하자...
- 아브락사스 : 선과 악은 공존한다... 내가 잘해석하고 승화해야함?
- 에바부인 : 진정한 사랑이란...? 공존..대립..성장..수용..... 공존의 깨달음
(((묘사: 그림의 여인은 에바부인... 그녀를 찾았던 것
< 사랑은 확신 하는 거예요! '불안감... 경험... 성장.. 깨달음... 확신!'

● P.149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무언가를 보고 미워하는 거지.
우리 자신 속에 있지 않은 것, 그건 우리를 자극하지 않아.
<결국... 내가 나를 자극하는 것인가...?

● P.150

“우리가 보는 사물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사물들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비현실적으로 사는 거지.

< 우리 마음속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

그들이 바깥에 있는 물상들만 현실로 생각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들 자신의 세계가 전혀 발언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행복할 수는 있겠지.

< 그림자.....? >

그러나... 일단 다른 것을 알면 그때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길을 가겠다는 선택이란 없어져 버리지.

싱클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쉬워. 우리의 길은 어렵고.

우리 함께 가보세!”

● P.122

‘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

< 투쟁 이란 표현이 적절...

< 결국 내가 알던 신념을 깨뜨려야 보이는 걸까?

< 경험은 곧 고통이요~ 다시 성숙과 성장

< 아브락사스... 선과 악이 섞인 신!

< 선과 악은 공존한다....

● P.218

‘꼬마 싱클레어, 잘들어! 나는 떠날거야. 너는 어찌면 다시 한번 나를 필요로 할 거야. 크로머에 맞서든 그 밖의 다른 일이든 뭐든.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이제 나는 그렇게 거칠게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달려오지 못해. 그럴때 넌 너 자신 안으로 귀 기울여야 해.

그러면 알아차릴 거야.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 거칠게..... 경험이 없을때는 거칠었다?

<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 그만큼 성숙과 조절?

● P.218

“에바부인이 말했어. 네가 언젠가 잘 지내지 못하면 나더러 네게 당신의 키스를 해 달라고, 나에게 주어 보낸 키스를...., 눈을 감아, 싱클레어”

나는 선선히 눈을 감았다. 내 입술 위에 가벼운 입맞춤이 느껴졌다.

내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피가 흐르고 있었고, 피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다.

아침에 사람들이 깨웠다. 붕대를 감아야 했던 것이다.....옆에는 한번도 본적 없는 낯선 사람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

붕대를 감을때는 아팠다.

그때부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다.

‘ 그러나...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 완전히 나 자신속으로 내려가면, 어두운 거울 속에 운명의 영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나는 그 검은 거울 위로 몸을 숙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와, 나의 친구이자 인도자인 그와.

● 처음...

‘ 내속에 솟아 나오려는 것,

‘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 보려고 했다.

‘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 1. 데미안은 싱클레어 인듯... 무의식과 그림자...?

● 2. 무지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 내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근데... 세월이 결국 경험과 상처와 깨달음을 주는 것 같다.

‘ 근데... 어설픈 깨달음은 내속의 그것이 있다는, 인지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는 듯하다.

그러다가,

살면서 깨져보고... 다쳐보고... 찾아보고... 수용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쯤...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잘 사용해 보려는 방향의 키를 잡는듯 싶다.

● 3. 인간에게 선 과 악 이란.....

- 공존 하는 것일까?

- 왜 인간은 공존하는 것 같을까? (유전자...? 원래...?)

- 진정한 선이란 있는 걸까?

-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결국..... 중도???

물음표가 너무 많아..... (ㅠㅠ)

● 마지막으로...

데미안은 인간의 성장을 알려주고, 깨우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데 공통의 답이 아닌, 각자에게 답을 고민하게 하는 설명서' 와
같은책 인듯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각자의 삶이 모두 다르니깐~

그리고, 데미안은 젊은 나이에 한번 읽고,
꼭~! 중년쯤 됐을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듯 하다고 본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흡수된 선... 악... 내마음... 외부경험들이
크게 공감을 준다고 본다.

또한, 해석의 개념을 약간 먼저 이해하고 읽으면,
좀 더 깨달음을 얻을 듯 싶다.

그러나~ 그냥 읽어도,
헤세의 문장과 표현은,
인간의 유년시절부터 사랑... 성장... 삶의 과정 들을...
너무 공감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헤세가 살아온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인간 사는 것은 비슷하구나...' 느끼게 하는듯... ㅎㅎ

역시~ 고전 (인간이 경험하고 고민하고 쓴 책)은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 나란 인간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 해주는듯 싶다.

왜냐하면... 고전은,
'인간 사는게 다 비슷했구나....!' 라는 기준의 증명을 주기에...